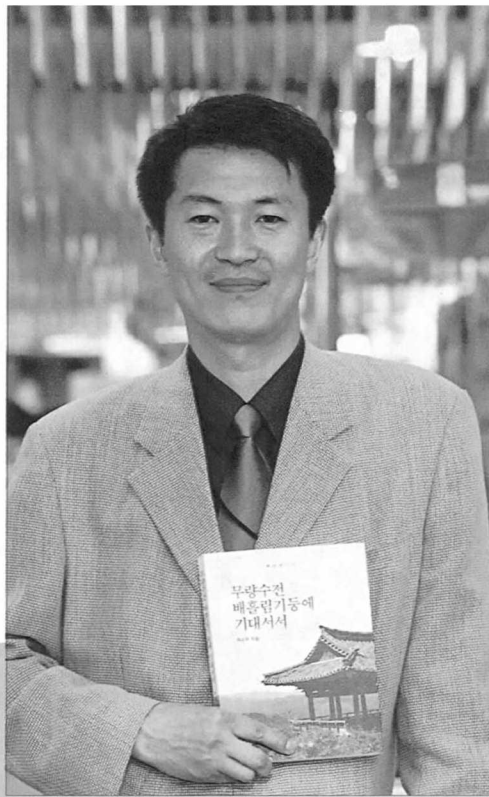


## 고졸하고 맛깔스런 문체가 일품인 전통미학 입문서

교보문고 위성계 대리가 뽑은  
최순우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이상하게 건축부분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군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느낌이 있어 늘 곁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계씨(37, 교보문고 홍보실 과장직무대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즐겨 책을 선물한다. 후배 직원에게는 미리 언질을 받아 원하는 책을 사주지만, 임의로 책을 골라 선사할 때도 있다. 선물하는 책은 정해져 있는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최순우, 학교재), 《내 마음 속의 그림》(이주현, 학교재), 《섬진강》(김용택, 창작과비평사) 등이 그것이다.

자연히 '내 서가의 책 한권' 후보도 이 세권으로 압축됐다. 장르와 출판사가 겹치는 앞선 두권 사이의 '경합'에서 이주현씨의 책이 먼저 탈락하고, 최순우의 선집과 김용택의 시집이 '결선'에 올랐다. 결국, 위성계씨는 최순우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1994)를 선택했는데, 《섬진강》은 시인의 잦은 산문집 출간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동안 문화유산답사기류의 책이 쏟아져 나왔지요. 하지만 우리 문화유산을 재료로 간명하게 느낌을 전달하는 책은 드물었습니다. 고졸(古拙)하고 맛깔스런 문체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숨겨진 측면에 대한 통찰이 놀랍습니다.”

이 책은 《혜곡 최순우 전집》(학교재, 1992)에서 일반인이 읽기에 적합한 글을 가려 뽑아 엮은 것이다. 건축·석탑·공예·도자기·회화 등 한국 전통미학의 여러 영역을 다룬 글을 수록했는데, 위성계씨는 건축분야에 유독 마음이 끌린다.

“이상하게 건축부분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군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느낌이 있어 늘 곁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틈나는 대로 읽는다.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적은 없다. 다만, 특정한 대목을 여러번 펼쳐 들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십수번도 더 읽었다. “제 처가가 경북 영주입니다. 처가에 갈 적마다 부석사에 들르곤 하는데, 최순우 선생의 눈썰미는 도저히 못따라잡겠더군요.”

출판계에서 '위대리'로 통하는 위성계씨는 언론사 출판담당 기자들의 호출을 자주 받는다. 출판흐름을 명확히 짚어내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다. 98년 영업장에 머물 때는 남성임에도 '복 켜'으로 선정될 만큼 서비스 정신도 몸에 배어 있다. 무엇보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책 장수에게 무슨 책 추천을 부탁하냐”던 그의 안목이 여간 아니다. - 최성일 기자

도서관 이채에서 여러분께 **꿈을 빌려드립니다**

## 세상 모든 꿈을 꾸는 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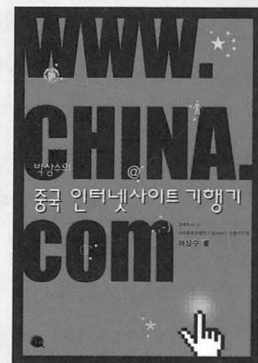
값 8,000원

이 책에 실린 아이들의 솔직한 자기고백은  
끝없는 킁킁한 터널을 어둠사리 지나는  
심대에게 자그마한 길잡이등불이  
되어줄 만하다.

**강지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인터넷으로 中國 대륙을 뚫는다!

### 박상수의 중국 인터넷사이트 기행기



값 12,000원



tel / 02)511-1891, 512-1891  
fax / 02)511-1244  
e-mail / min7gi@chollian.net